

〈차사본풀이〉 연구

-강림(姜林)의 저승여행과 존재전환을 중심으로-

강진욱*

— <차 례> —

1. 머리말 : 강림과 저승여행을 주목하는 이유
2. 강림의 여행경로와 인물형상
3. 여행체험과 정체성
4. 이계와의 소통 : 의례를 통한 공간의 내부화
5. 마무리

〈국문초록〉

〈차사본풀이〉는 저승차사의 좌정(坐定) 내력을 풀이하는 무속신화로서 주인공 강림의 저승여행이 서사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강림의 저승여행은 낮은 단계로 나아가는 노정이자 자신의 내면으로 향한 탐색의 여정이다. 여행의 경로에 따라 변화하는 인물형상은 저승차사로의 전환과 그에 따른 정체성 확인과정을 보여준다.

강림의 행로를 따라 이계공간은 점차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세계간의 경계를 표상하는 공간적 지점들이 부각되는데, 이러한 지점마다 특별한 의례가 수행되면서 저승세계로의 진입이 점차적으로 허용된다. 강림의 저승여행은 미지의 외부공간이던 저승세계를 기지(既知)의 세계로 전환시킴으로써, 저승세계를 이 세상적 관점에서 내부공간화(內部空間化)하는 작업인 것이다.

강림의 저승여행은 이승/저승으로 구획된 세계간의 경계를 넘어 소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를 보여준다. 저승여행자 강림은 세계간의 경계를 넘음으로써 일체화된 세계상(世界像)을 실현하고 있다. 여정에 따라 변모하는 인물의 형상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삶을 향한 열망이 부딪히면서 만들어낸 자기확인의 과정

* 이화여자대학교

을 보여준다. 강림의 서사는 이계여행을 통해 어떻게 정체성을 확인하고 존재전환을 이루어갔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이며, 인간의 경계를 넘어 신이 되는 경계넘기의 서사이다.

주제어 차사본풀이, 저승여행(이계여행), 저승차사 강림(姜林), 공간이동, 정체성, 존재전환, 공간의 내부화, 이계와의 소통방식, 경계넘기

1. 머리말 : 강림과 저승여행을 주목하는 이유

<차사본풀이>는 저승차사의 좌정내력을 풀이하는 무속신화로서, ‘단명’이라는 운명적 재액과 ‘연명의 시도’라는 주제를 제시하여 삶과 죽음, 이승과 저승의 관계양상이라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는 서사유형이다. 이를 위해 <차사본풀이>는 예사롭지 않은 모티프들¹⁾을 다각적으로 활용하여 서사내용을 흥미롭게 구성함으로써 향유층의 관심을 환기하고 있다. <차사본풀이>를 구성하는 화소 중에서 ‘피살-환생, 급작스런 죽음, 원정올리기, 염라왕(저승차사) 판결’ 화소는 구전 및 문헌소재의 설화들과 서사무가(집가제굿)로도 전해지고 있어 다양한 관점에서의 접근가능성을 제공해주고 있다.

이러한 자료적 특성으로 <차사본풀이>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유사한 모티프나 유형적 특성을 공유한 서사자료들과의 비교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졌고²⁾ 그 결과 동계서사들과 구별되는 <차사본풀이>의 특징들

- 1) 예를 들면, 단명豫示-연명시도, 피살-환생, 급작스런 죽음, 원정소지, 저승여행, 염라왕 판결, 재생, 저승차사 좌정 등이다.
- 2) 대표적인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최원오, 「<차사본풀이> 유형 무가의 구조와 의미」, 『한국민속학』 제29집, 한국민속학회, 1997; 김형근·김현선, 「제주도 무속신화 <차사본풀이> 연구 : 함흥 <집가제굿> 무가와 비교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제31권 3호 112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권태효·김윤희, 「동계 자료와의 대비를 통해

이 상당부분 드러난 바 있다. 이러한 사실은 향후 <차사본풀이> 연구가 선행연구 성과를 토대로 작품 본연의 가치와 의의를 보다 심도 있게 드러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말해준다. <차사본풀이>에는 동계의 여타 서사유형들과 변별되는 지점이 적지 않지만, 그중에서도 문제해결을 위해 저승존재와 관계 맺는 방식에서 보여주는 차이는 주목할 만하다. 여타 유형에서는 염라왕(저승차사)과의 만남이 (예지력 있는 인물이 제시한) 지상의 특정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데 비해, <차사본풀이>는 강림이라는 인물이 저승여행을 통해 염라왕을 이승으로 오게 하여 과양생처의 원정소지를 판결하게 한다. 그러므로 강림의 저승여행은 동계서사들과는 변별되는 <차사본풀이>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강림이 저승으로 가야하는 당위는 버물왕의 3아들에게 예시된 단명이라는 운명적 재액에서부터 비롯된다. 단명이라는 운명이 제시되자 버물왕은 고승의 도움을 받아 아들들의 연명 방안을 모색하지만, 3아들은 금기를 위반하여 과양생처에게 살해되고, 이어 과양생처의 세 아들로 환생했다가 급작스럽게 죽어버린다. 과거에 급제하고 돌아온 세 아들이 한낱한시에 죽어버리자 과양생처는 원정소지를 올려 김치원님에게 해결을 강요한다. 궁여지책으로 강림을 저승으로 보내자는 기획이 마련되고 급기야 강림의 저승여행이 결정되는 것이다. 강림은 이승의 존재로서 저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승세계의 여행자이다. 그는 여행을 통해 임무를 완수했고, 여행의 체험에 의해 저승차사로 좌정한다.

본 <차사본풀이>의 성격과 기능, 『구비문학연구』 제30집, 한국구비문학회, 2010.6; 강진옥, 「<김치설화>의 존재양상과 <차사본풀이>의 형성문제, 『비교민속학』 제41집, 비교민속학회, 2010.4; 강진옥, 「<차사본풀이>의 서술구조와 의미지향 : <김치(金織)설화>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비교민속학』 제43집, 비교민속학회, 2010.12; 강진옥, 「김치(金織) 인물형상화 방식에 나타난 <차사본풀이> 서술시각 : 『해동이적·보』소재 <김치설화>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제31집, 한국구비문학회, 2010.12. 외.

이렇게 전개되는 강림의 행적은 이승적 존재가 저승차사로서의 직능을 갖게 되는 존재전환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사건은 여행이다. 그의 여행이 특히 주목되는 것은, 여정의 과정과 인물의 존재태가 긴밀한 연관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강림이야기는 여행의 서사로서 저승여행의 과정과 그 경험내용을 매우 구체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이에 본고는 강림의 저승여행과 인물형상의 변화를 주목하고, 강림의 여정에서 드러나는 이계와의 소통방식과 세계인식의 양상을 검토해보기로 한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 본고는 <차사본풀이>의 이본들 중에서도 가장 정연한 서사적 짜임새와 서술의 체계를 갖추었다고 평가되는 <안사인구연본>³⁾을 중심에 놓고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2. 강림의 여행경로와 인물형상

2.1. 서사단락과 공간 지표

<차사본풀이>는 크게 버무왕 3형제의 서사, 과양생처의 서사, 강림의 서사로 구성된다.⁴⁾ <차사본풀이>의 서술구조에 대한 논의는 선행연구에서 자세하게 이루어진 바 있으므로, 강림의 저승여행을 중심에 놓고 <차사본풀이>의 서사단락을 정리해보기로 한다.⁵⁾

I. 버무왕 3아들의 서사

3)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213-275면.

4) 강진욱, 『<차사본풀이>의 서술구조와 의미지향 : <김치(金織)설화>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비교민속학』 제43집, 비교민속학회, 2010.12.

5) 강진욱, 앞의 논문에서, <차사본풀이>의 서술구조와 서사단락을 자세하게 다룬 바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그것을 토대로 재정리하여 제시한다.

- 1.3형제의 단명이 예시된다.
- 2.3형제의 연명을 위한 노력이 실행된다.
- 3.3형제가 금기를 위반하여 연명이 좌절된다.(과양생처에게 피살)
- 4.3형제의 원혼이 환생을 거듭한다.

II. 과양생처의 서사

- 5.과양생처가 세 아들을 낳다.
- 6.과양생의 세 아들이 과거급제하고 돌아와 급작스럽게 죽는다.
- 7.과양생처가 김치원님에게 석달열흘간 원정소지를 올린다.
- 8.김치원님의 고민이 깊어지자 강림이 천거된다.

III. 강림의 서사

9. 강림은 염라왕을 잡아와야 하는 임무를 맡고 절망한다.
- 10.방황하던 강림은 첫날밤 소박했던 큰부인 집을 찾아가다.
- 11.강림의 큰부인이 저승여행을 준비하다.
- 12.강림이 가신들의 안내를 받아 78갈림길에 이른다.
- 13.질토래비의 도움으로 저승 연주문 앞에 도달하다.
- 14.염라왕을 포박한 강림은 염라왕과 함께 전새남 현장에 동행하다.
- 15.심방을 결박하여 신청궐에 초대받다.
- 16.변신한 염라왕의 정체를 밝히고 염라왕으로부터 이승방문을 약속받다.
- 17.귀환한 강림은 아내와 화합한다.
- 18.염라왕의 재판으로 삼형제는 재생하고 처형당한 과양생부부는 물것으로 환생하다.
- 19.강림의 능력을 탐낸 염라왕이 강림을 저승으로 데려가다.
- 20.강림이 저승차사로 좌정하다.

<차사본풀이>의 후반부는 앞선 버무왕 3아들(I)과 과양생처(II)의 서사에서 제기된 문제해결을 위해 마련된, 염라왕 프로젝트의 주인공 강림의 서사에 해당된다. 여기에는 저승행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인물의 상황과

그의 저승여행을 성사시키기 위한 일련의 절차들이 서술되고, 인물이 나아가는 여행의 경로도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므로 강림서사는 저승여행의 방법과 여행의 경로를 다룬 여행의 서사라고 말할 수 있다. 여행의 서사답게, 강림의 형상은 여행의 경로에 따라 상황에 대처하는 인물행위를 구체적으로 그려내어 여정에 따라 변모해가는 인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저승여행이 갖는 의미를 효과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저승여행자 강림의 행적을 의미화 할 수 있는 공간적 지표를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제시된 서사단락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A. (9-11)은 여행의 준비단계로서, 강림의 방향이 끝나고 저승여행 준비가 본격화되는 곳은 큰부인의 집이다.[집]

B. (12)는 가신들의 안내를 받아 나아가는 노정으로서, 남문 밖에서부터 78갈림길 앞까지로 나타난다. 이는 질토래비 이원사제의 안내를 받는 저승계와는 대비되는 이승계 공간이다.[이승계]

C. (13-16)은 저승계 진입 이후의 사건으로서, (13)은 이원사제의 안내를 받아 행기못에서 연추문 앞까지 도달하는 과정이고, (14-16)은 염라왕을 포박하고 전세남 현장에서 신성자질을 발휘하는 대목이다.[저승계 진입 이후 노정]

D. (17-18)은 강림의 귀환과 염라왕의 재판까지를 보여준다.[이승 :귀환 이후]

E. (19-20)은 강림의 죽음과 저승차사 좌정내력을 보여준다.[저승/이승 넘나들기]

2.2. 여행경로와 인물형상의 변모

강림서사에서 서사적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들은 특정한 공간적 지점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앞서 제시한 여정에 따라 인물이 처하게 되는 중요한

공간지점과 인물형상의 변모양태를 연관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A. 집 : 여행의 준비단계

A-1. 강림의 귀가 : 집의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다

강림서사에는 처음 과양생처의 원정소지로 김치원님이 거주하는 동헌이라는 공간이 부각된다. 그러나 원정소지를 해결하지 못한 김치원님의 고민이 깊어지자 해결자로서 강림이 천거되고 강림을 저승으로 보낼 명분용 계획이 마련된다. 강림은 ‘사형 또는 저승에 가서 염라왕 잡아오기’ 중 택일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당장의 죽음을 모면하고자 저승행을 선택하지만, 이후 강림의 행동은 저승행이 곧 죽음이라는 인식을 보여준다.

서사문맥을 통해 볼 때, 강림은 공적으로 자기 직분에서 능력을 인정받았고, 사적으로는 문의 안과 밖에 도합 18명의 호첩을 두고 화려하게 산 인물이다. 향용 ‘뚝뚝하고 역력한’이라는 수식어가 붙거나 ‘영걸’로 지칭되는 것은 그러한 삶의 방식이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마초이즘이 지배하는 사회에선 그것이 남자다움의 다른 표현이었던 것이다. 그러했던 강림이 저승행을 앞두고 가깝게 지내왔던 인연들을 찾아다니고, 해결방도를 찾지 못해 방황하다가 큰부인을 기억해내고 집을 찾아간다는 점 등은 주목할 만한 사건이다. 절망 속에서 그들을 찾아다녔다는 것은 자기 처지를 하소연하고 해법을 구하러 다녔음을 시사한다. 기존 관계들의 피상성이 드러나고 절체절명의 순간 큰부인을 떠올리는 것은 근본적인 자기반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내 집 사랑방에서 문을 잠근 채 이불을 뒤집어쓰고 우는 강림의 모습은 극단적인 좌절감을 대변하고 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온 강림은 조강지처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점차 가장다운 모습을 회복하게 된다. 집밖의 존재로 떠돌던 강림은 이제 집안의 존재로 돌아온 것이다. 강림의 절망과 방황은 가장으로 거듭나는 통과

례의 절차로 이해할 수 있다. 죽음의 문제 앞에서 자각하게 된 유한성에 대한 인식은 강림에게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자기현실과 조강지처의 존재를 재인식하게 해주는 것이다.

A-2. 아내의 여행준비 : 집의 안

아내는 강림의 저승여행을 성사시키기 위한 준비에 돌입한다. 문제 해결을 위해 아내가 시도하는 방법은 크게 두 방향으로 나타난다. 첫째, 초자연적인 세계와의 교섭이다. 강림의 저승여행을 위해 아내는 먼저 신성 존재와의 소통을 시도한다. 정성스럽게 제물을 마련하고 가신들을 위한 의례를 행하여 강림의 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되기를 기원한다. 문전신과 조왕신에게 강림을 인도하여 그의 저승여행길을 열어주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둘째, 저승여행에 필요한 준비물을 차례로 마련한다. 강림이 입고 갈 입성과 여행 중에 먹을 음식물, 아울러 저승세계와의 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문서(저승본짱)를 점검하고, 이승으로 되돌아오는데 필요한 물품(저승본매 외) 등도 챙겨놓는다.

<차사본풀이>는 강림의 저승여행과 귀가라는 사건을 통해 집, 즉 조강지처가 있는 가정의 의미를 부각한다. 밖으로만 돌던 강림의 편향된 삶의 태도와 그릇된 가치관념은 귀가 이후에 펼쳐지는 사건과의 대비를 통해 여지없이 부정된다. 집의 안은 오랜 뜨내기 생활에서 피폐해진 몸과 마음을 쉬고 원래적인 모습을 회복해가는 공간이자(강림) 초자연적 세계와의 소통이 가능한 성소이다(아내). 전통적인 가신신앙을 참고하면, 집안의 곳곳에는 해당영역을 관장하는 가신들이 거주하고, 그러므로 집은 그 자체로서 만신전(萬神殿)인 셈이다.⁶⁾ 집의 안에서 펼쳐지는 만신전과 그의례를 주관하는 존재, 곧 사제는 집안의 주부이다. 강림의 아내가 보여주는 행위들은 그러한 신앙체계를 현실화하고 의례를 집행하는 사제로서의 면

6) 김열규 외, 『한국여성의 전통상』, 민음사, 1985.

모를 보여준다. 이러한 내용들은 아내의 정성으로 구축된 집이라는 공간은 세계의 중심이고 인간존재의 근거이자 근원으로서의 의미를 실현하고 있다.

A-3. 출발지점 : 집의 안에서 밖으로

집안에서 이루어지던 여행준비는 출발지점에 이르자 공적인 형태로 전환된다. 강림의 아내는 여행과 관련한 전반사항을 세심하게 점검한다.

먼저, 조왕할망의 계시에 따라 강림을 깨우고 마련해둔 옷을 내어주며 저승행착을 차리게 한다.(수의법 마련) 강림 아내가 내어놓은 저승입성은 <해심곡>에서 서술된 저승차사의 행착과 동일하다.⁷⁾ 둘째, 강림이 가지고 갈 저승문서를 점검하고 오류를 발견하자 동현으로 달려가서 김치원 님에게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도에 맞는 문서를 다시 작성하게 한다. (명정법 마련) 안사인본에서는 이 대목에서 강림아내를 부각시켜 김치원 님보다 우월한 인물로 형상화된다. 셋째, 정체확인용 신표들을 마련하고 강림의 몸에 부착한다. 저승본좌의 존재는 질토래비에 의해 알려지는데, 그것이 없으면 이승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한다(상장례 유래). 사적신표로서 귀 없는 바늘쌈을 강림의 옷섭에 넣어두는데, 이는 후일 강림이 돌아왔을 때 그의 정체를 확인하는 증표로 사용된다.

이러한 사례들은 아내의 인물 됴됨이를 부각시키는 데 기여한다. 그녀는 의례를 통해 신성존재와 소통할 뿐만 아니라 저승문서나 저승본매의 용례를 통해 저 세상의 질서까지 파악하는 혜안의 소유자였다. 강림 아내

7) 현용준, 앞의 책, 214-225면. <해심곡>은 『시왕맞이』 제차의 일부로서 <차사본풀이>에 앞서 구송되는데, 현재 안사인본에서만 확인된다. <해심곡>은 전국적으로 전승되는 <회심곡>류와 일정한 유형적 연관성은 보여주지만, 여타 각편들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뚜렷한 개별성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차사본풀이>에서 회심곡류를 인용하고 인물형상이나 저승에 관한 서술에서 일정한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시사적인데, 이에 대해서는 별고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다.

의 비범성은 초자연적 세계와 교섭하는 신이한 능력뿐만 아니라 도덕적이고 윤리적 측면에서도 부각된다. 그녀는 지혜롭고 정숙하며 알뜰할 뿐 아니라 고난을 참고 견뎌온 조강지처이다. 정숙성과 절조를 부각하는 이 대목은 아내와 첩들을 차별화하는 지점이다.⁸⁾

애초 강림과 아내는 서로 대척적인 지점에 위치했다. 강림의 능력은 현실적, 일상적 차원에서 외현적으로 발휘되었던 것에 비해, 아내의 능력은 비일상적, 초자연적 차원에서 발휘되어 일상적 차원에서는 파악되지 않았다. 대립적인 것처럼 보이는 두 인물의 능력은 강림의 귀가 이후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면서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했던 강림의 저승행을 현실화하게 되는 것이다.

B. 남문 밖~78갈림길 앞 : 이승계

집의 내부공간에서 여행준비를 완료하자 강림은 집밖으로 나와 부모와 형제, 친지들과 작별인사를 나누게 된다. 가족 구성원들은 강림이 저승 가는데 다리를 놓아준다는 의미로 각기 착용한 의류를 내어놓는데, 의류의 종류는 관계의 친소에 따라 정해진다. <차사본풀이>는 이를 통해 가족의 관계양상을 규정하는 기준이 마련되었을 뿐 아니라 부부간법의 유래가 나왔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작별인사는 가족관계를 재확인하는 의식으로 작용하고 있다. 동헌에 들어가서 함께 근무했던 동관들과도 작별한 강림은 아내의 전송을 받으며 남문 밖으로 나온다.

남문 밖에 나선 강림은 저승으로 가는 길을 몰라 ‘비새같이’ 운다. 남문을 기준으로 문밖의 공간은 낮선 세계를 의미한다. 길 위에서 우는 강림의 모습은 나아갈 길을 몰라 막막한 그의 처지를 대변한다. 그런 강림의

8) 큰부인과 호첩들과의 관계 설정을 통해 부부관계와 가정의 의미를 재확인하는 것은 <차사본풀이>가 지향하는 의미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된다.

앞에 조왕할망이 나타나서 길을 인도하여 78개 갈림길 앞에 도달한다. 다시 어느 길로 들어가야 할지를 몰라 ‘대성통곡으로’ 우는 강림 앞에 문전신이 나타나 저승으로 들어가는 78갈림길에 대해 일일이 알려주고 이후 강림이 취해야 할 행동수칙에 대해서도 알려준다. 그 정보를 바탕으로 강림은 갈림길로 들어가고 질토래비(이원사제)를 만나게 되는 것이다.

목숨을 걸고 저승여행길에 나섰지만 나아갈 방향조차 막연한 상태에서, 강림을 지배하는 정서는 두려움과 절망이다. 이승계에서 저승계로 향해가는 출발지점에서 하릴없이 울고 있는 강림의 모습은 미지의 세계인 저승으로 향해가는 길찾기의 어려움을 잘 보여준다. 문제의 해법은 아내가 행했던 가신의례에 있다. 아내의 제향을 받은 가신들이 차례로 나타나 강림의 저승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C. 저승계 진입 이후 노정

C-1. 갈림길에서 행기못까지 : 질토래비 만남

갈림길에 들어온 강림은 문전신이 알려준 대로 행동하여 길을 닦다 지쳐 쓰러진 질토래비와 사귀고, 그로부터 염라왕에 대한 정보와 저승여행을 완수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얻는다. 구체적으로 적배지 사용법, 염라왕 출타관련 정보, 행기못에서의 행동수칙, 저승본좌의 기능, 저승여행자의 자격 등이다. 그에 따르면 저승은 ‘검은 머리가 백발이 되도록 걸어보아도 못가는’ 곳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갈 수 없는 공간임이 강조된다. 그럼에도 강림은 과제수행을 위해 저승으로 가야하므로, 질토래비는 삼훈부르기를 하여 강림에게 저승여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C-2. 행기못에서 연추문 앞까지

삼훈부르기로 강림의 혼정은 삼시간에 행기못에 이르고, 행기못 주변에 있던 귀신들이 몰려들자 떡을 잘게 끊어 흩어준다. 굶주린 귀신들이

떡을 먹는 동안 행기못에 빠져 저승 연추문 앞에 도달한 강림은 연추문 앞에 적배지를 붙이고 염라왕의 행차를 기다린다. 일련의 행위들은 앞서 질토래비에게 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행해진다. 이 대목에서 강림은 처음으로 느긋한 모습을 보여준다. 적배지를 붙이고 느긋하니 염라왕의 출타를 기다리는 강림의 모습에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파악하는 자의 여유가 느껴진다. 나아가 염라왕의 행차 시 가마에 달려들어 염라왕을 포박하는 강림의 행동을 서술하는 부분에서는 영웅적 면모가 돋보인다. 염라왕은 밧줄을 늦추어 달라 사정하고, 포박에서 풀려나자 강림에게 맏짓장제집의 전세남 받아먹으러 가자고 청한다. 이처럼 이원사제와의 만남은 강림의 저승여행에서 결정적 전환기로 작용한다. 숙지한 정보를 바탕으로 저승계 내부로 진입한 이후의 강림 형상은 앞서와는 달리 비상한 능력을 발휘하는 영웅적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C-3. 전세남 현장 : 청신 대상으로 호명되다

강림은 염라왕을 따라 전세남이 행해지는 지부장자집으로 행한다. 굿판에서는 모셔야할 신들의 이름을 호명하지만 강림의 이름은 불리지 않는다. 강림은 신의 명부에 등재된 신성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강림이 심방을 결박하니 심방은 제상 앞 돛자리에 쓰러지고 상황을 파악한 눈치 빠른 수소미가 대령상을 내어놓고 강림을 청하여 맞아들인다.⁹⁾(사제상 유래)

강림은 권하는 대로 술을 마시고 사자상 아래 쓰러져 자다가 깨어나보니 염라왕이 보이지 않자 혼비백산하여 ‘비새같이 울며 먼 올레에 나가

9) 이 대목에서 심방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산이 체스(差使)도 체습네다. 우리 인간 강림체스도 저승을 가아네 염내왕광 7찌 신수피 시는 듯후다. 강림체스도 살려옵서.” 그러자 그러자 죽어가던 심방은 살아나고, ‘그때 나온 법으로 시왕당클 아래 스팀상을 심어 나갓방석 나갓도전을 치어 올리는 법’이라고 부연된다.(현용준, 앞의 책, 260-261면.)

보니' 조왕할망이 나타나 염라왕의 변신사실과 있는 곳을 알려주며 염라왕이 스스로 정체를 드러낼 방법도 말해준다.¹⁰⁾ 그 정보에 힘입어 강림은 염라왕의 정체를 확인하고, 염라왕도 강림의 비범성을 인정하며 동헌마당으로 가겠다고 약속한다. 이상에서, 저승세계로 향한 강림의 여정은 초자연적 존재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다. 가신들의 안내와 질토래비의 제보를 통해 강림은 저승세계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고 점차 적응해가면서 임무를 완수하게 된다.

D. 이승 : 귀환 이후

D-1. 귀환과 부부화합

이승으로 가는 길을 모르던 강림은 염라왕이 일러준 대로 백강아지 뒤를 따라 가는데, 강아지가 피를 낼 때마다 겨드랑이에 품은 떡을 끊어 던져주면서 행기뚝에 도달한다. 이는 이후 망자의 겨드랑이에 떡을 품게 하는 관습의 기원으로 설명된다. 이승에 도달한 강림은 큰부인 집으로 가서 부부화합을 이루고, 가족관계를 정비한다.(열녀법, 服喪制 마련)

D-2. 중재자 강림 : 염라왕과 김치의 갈등 중재

강림은 이웃의 밀고로 하옥된다. 염라왕 행차 시각이 다가오자 예사롭지 않은 징조들에 놀란 김치원님은 '공주(控柱) 기둥 뒤에 숨'지만, 염라왕이 그 기둥을 찾아 위협하니 양 주먹을 불끈 쥐고 발발 떨며 댓돌 아래로 내려선다. 그들의 갈등은 강림의 중재로 해소되는데, 강림은 김치와 염라왕을 각기 이승왕과 저승왕이라 칭하면서 양자를 상호 대등한 위치에 자리매김한다.¹¹⁾ 이 대목에서 강림의 형상은 앞서의 여타 경우들과는 확

10) “강님이야, 염내왕은 새몸(鳥身)에 환생(還生)허연 큰대 고고리에 앉아서 대뚝으로 큰대를 싸암시민 알 도리 이시리라.” (현용준, 앞의 책, 261면.)

11) 대뚝으로 싸자 하니 즈깃피가 불꽃 나더니, 원님이 양주먹 불끈 쥐어 북북 털멍 이이

연히 구별되는데, 특히 서두의 동헌에서 저승행을 강요당할 때에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D-3. 동헌, 주천못 : 염라왕의 재판

염라왕의 재판으로 삼형제의 억울한 죽음이 밝혀지고 이 과정에서 염라왕의 전지전능함이 부각된다. 염라왕은 버무왕 3아들을 재생시켜 집으로 보내고, 과양생부부를 처벌한다.

E. 저승차사 좌정내력 : 저승/이승 넘나들기

E-1. 염라왕은 강림의 능력을 탐내어 삼혼을 뽑아 저승으로 데려간다.

E-2. 강림은 사람의 정명과 순차적 죽음에 관한 적배지 전달에 실패하고, 그 결과 순서 없는 죽음이 유래되었다고 설명된다.(동물유래담)

E-3. 동방삭 잡아오기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인간차사로 좌정한다.

이상에서 강림의 인물형상은 78갈림길을 기준으로 현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여정의 초기 ‘울다’가 주조였던 강림의 행동은 갈림길 진입 이후 다양한 양태를 보이면서 내재된 영웅성을 발현하게 된다. 강림의 인물형상은 인물이 처해있는 단계마다 상황에 부합되는 자기다움을 어떻게 발견하고 실현해가는가를 보여주며 여정의 단계에 대응하는 인물의 내면적 상황이나 존재론적 위상과 긴밀하게 대응하고 있다.

알(下)레레 느려스니, 염내왕이 고성을 높이여 어떤 일로 나를 청허였느냐 원님도 데 답할 수 있어 주먹을 쥔연 털어가난, 원님 대신 강님이가 데답하네 염내왕님이 어찌 그리 후욕을 흡네까? 자승 왕도 왕(王)이고 이승 왕도 왕인디 왕(王)광 왕짚에 못청 흘 배 있소리까? 염내왕이 그 말을 들으니 강님이 똑똑하고 역력하다. 이승왕님이 어떤 일로 나를 청흡네까? (현용준, 앞의 책, 268면)

3. 여행체험과 정체성

앞에서 살펴본 바, 강림서사의 핵심사건은 저승여행이고, 강림의 형상은 인물이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과제수행에 필수적인 여행의 과정과 인물형상의 변화가 서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은 적지 않은 의미가 있는데, 여행의 경로로 제시된 구체적 지점들은 외적인 공간지표이자 인물의 내적 상황을 반영하는 표상물로도 작용하기 때문이다. 여정의 중요지점마다 접하게 되는 지식과 여행의 체험으로 초래된 여행자의 인식변화는 서사내부에서 인물형상의 변모로서 구현되는 것이다. 서사의 전 과정에서 강림의 여정은 삶과 죽음, 이승과 저승을 반복적으로 오가는 방대한 체험 영역을 확보하면서 적지 않은 인식의 변화를 경험한다.

3.1. 여성인식의 변화 : 가장으로서의 자기 확인

강림의 형상에서 우선적으로 감지되는 것은 여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이다. 강림의 여성관은 그의 언행을 통해서 구체화된다. 강림의 여성편력은 ‘문의 안과 밖에 각기 9명씩 도합 18명’이나 되는 첩으로 대변되고, 그 화려함의 이면에는 그림자처럼 ‘첫날밤에 소박하고 버려둔 아내’가 있다. 이러한 생활방식으로 보건데, 강림은 기본적으로 여성을 인격적 대상이 아닌 놀이의 상대로서 대상화하는 인물로 보인다. 강림의 여성관은 ‘여자는 꿈에만 나타나도 邪物’이라는 언급에도 나타나는데 여성편력은 그러한 여성관을 일상적 현실에서 실현하는 것이다.

저승행을 앞두고 방황하던 강림은 저승으로 가야하는 당위와 그것이 불가능한 현실 사이에서 좌절하고, 자신이 중시했던 가치관념과 그것에 입각하여 영위해온 삶이 헛된 것임을 자각한다. 강림의 울음은 저승행 곧

죽음 앞에서 자기존재 확인에 실패한 사람의 절망감을 보여준다. 걸치례를 쫓아 뜨내기처럼 살던 그는 절망의 밑바닥에서 처절한 자기반성과 함께 큰부인을 떠올리고 그녀의 집을 찾아가며, 아내의 진면목을 인식하고 자신감을 회복하면서 가장으로서의 자기위상도 확인하게 된다.

집밖에서는 방황을 일삼던 강림이 집의 안에 처하면서 문제의 해결방법을 찾게 되는 것은 그가 가장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남편과 아내가 각자 자리를 찾으으면서 가정은 회복되고, 합심한 부부는 상호보완적으로 역할한다. 가장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면서부터 해결의 단서가 열리는 것은 가정 또는 가족관계가 인간의 사회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기초 단위로서 중요함을 보여준다.

큰부인과의 관계회복 과정에서 여성인식의 편향성이 교정되고는 있지만 조왕할망과의 대면장면에서 강림의 여성편견은 여전히 표출된다. ‘여 자라는 것은 꿈에서 보기만 해도 邪物인데...운운’은 앞서 ‘다수의 첩’과 ‘첫날밤에 소박한 조강지처’로 대변되는 강림의 마초적 면모를 부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림은 할머니의 예사롭지 않음을 깨닫자마자 상대를 인정하고 공경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자신이 소박했던 아내에게서 예사롭지 않은 면모들을 확인하고 인식을 바꾸었던 강림은 이제 자신이 알보았던 할머니가 조왕할망임을 알게 되면서 또 한 번 인식의 변화를 경험한다. 이후 강림의 여행길은 한계상황 속에서 인식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과정이 되며, 마침내 저승에서의 임무를 완수하고 귀환한 강림은 정성을 다해 그를 기다려온 아내와도 완전한 화합을 이룬다.

강림의 여성인식이 여행의 경로와 함께 변화하는 것은 이 작품이 지향하는바 가족과 가정에 대한 가치관념의 일단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가족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개인의 정체성은 가족구조와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므로 개인은 가족공동체 안에서 자기존재의 근거를 확인하기 때문

이다.

3.2. 유한성 자각과 존재론적 성찰 : 정체성 확인과정

강림은 세상으로부터 ‘똑똑하고 역력한’ 인물로서 평가받을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강한 자부심을 지닌 존재이지만 저승행이라는 현실 앞에서 자신의 무지, 무능력, 한계를 깊이 인식하게 된다. 저승여행은 죽음의 세계로 가는 일이고, 죽음이라는 현실은 자기 존재와 삶의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의 계기를 제공한다. 시선의 방향전환은 자기존재의 근원에 대한 성찰을 야기하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묻는, 곧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제기된다. 그렇게 죽음 앞에서 강림은 자신의 본래적 모습(가장으로서의 정체성)을 되찾고, 여행의 출발선에 서는 것이다. 저승여행은 인식의 지평을 넘어 존재의 근원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다.

저승여행은 이계, 즉 이승과 저승의 소통을 전제로 하는 일이다.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발신자의 아이디(ID)가 전제되어야 한다. 아이디 없이는 발신도 수신도 불가능하므로 정체성의 문제는 필수적이다. 강림 아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집이 가신들의 상주처인 만신전임을 알고 스스로 가신의례를 주관할 수 있는 사제로서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집은 초자연적 세계와의 교신을 위한 발신처이자 신성존재와의 소통을 실현하는 성소로서 세계의 중심이자 우주의 중심인 것이다.

가족주의의 맥락에서 개인의 정체성은 가족관계가 존재하는 가정, 곧 집에 근거하고 있었다. 이러한 관념은 전통적으로 객사를 금기시하고 자기 집 안방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일을 중시해온 관습적 가치관과 일정하게 연관된다. 정체성을 확인하지 못한 존재는 저승세계 여행자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 없다. 국적을 갖지 못한 자가 여권을 가질 수 없고, 여권이

없으면 국경을 넘거나 되돌아 올 수 없는 것처럼. 이런 관점에서 강림의 귀가는 개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관습적 관념들과도 일정한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밖으로만 떠돌던 남편들이 마지막에는 조강지처가 있는 집으로 돌아오던 것도 그러한 관념과의 연관성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강림이 저승세계를 여행할 수 있었던 것도 가장으로서의 자기 위상을 회복했기 때문에 아내의 도움을 받아 여행준비를 완료하고 출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저승여행은 죽음의 세계로의 이행이다. 삶과 죽음은 양립할 수 없는 것이므로, 산 자로서 죽음의 세계를 여행하는 일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대립적 상황을 중재하는 방안으로서 의례가 행해진다. 강림의 저승여행은 질도래비에 의해 삼훈부르기가 행해진 이후 본격화되었다. 이계여행과 정체성의 문제는 행기못 부근을 배회하는 귀신들을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다. 무속적 관념에 의하면 사람이 죽으면 저승으로 가야한다. 저승으로 가야만 조상신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조상신은 후손과의 관계를 통해 그 존재가 기억되고, 존재를 인정받는다. 반면 저승으로 가지 못한 혼령은 자기 정체성과 부합되는 자리를 상실하여 정처가 없으므로 뜨내기처럼 떠돌게 되는 것이다. 행기못 주변을 배회하는 귀신들은 정처를 잃고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못한 채 굶주리는, 정체성을 상실한 존재들이다.

강림의 저승여행은 잃어버린 정체성을 찾아가고 확인해가는 과정이다. 이승인으로서, 가장으로서, 사회적 존재로서, 저승인으로서. 강림의 여정에 따라 변모하는 인물형상은 바로 세계내적 존재로서의 인간모습을 보여준다.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역할, 관계의 맥락 속에서 가변적인 인간의 위상을 적실하게 보여주는 장치로 보인다.

강림의 저승여행은 공간적으로는 이계를 여행하는 것이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읽으면, 내 안의 타자, 즉 낯선 나를 찾아 떠나는 내면으로 향한 탐색의 여정이다. 내 안의 타자들을 의식화하고 인식의 전환을 이루는 과정에서 영웅성이 발휘된다. 영웅다움은 외적인 힘의 발휘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진정한 영웅성은 내면적 깊이, 인식적 능력의 확장에 토대한 힘의 발현이다. 여행은 인물의 잠재능력을 끌어내어 성장시키고, 강림은 여행을 통해 존재전환을 거듭하여 궁극적으로는 신성으로의 전환을 실현하는 것이다.

3.3. 강림의 존재전환, 인간차사 되기

염라왕이 삼혼을 빼내자 강림의 혼은 곧장 저승으로 가고, 몸과 혼은 분리된다. 앞서 행해진 여행에서는 연추문 앞에 머물면서 염라왕을 기다렸지만 이제 강림은 저승계 내부공간으로 직입하여 저승차사로의 전환을 위한 입사의례를 수행한다. 앞서의 여정을 통해 이승과 저승이 공간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경로가 드러났다면, 이제 저승존재로 전환된 강림의 행적을 통해서도 저승세계의 내부공간이 드러나고 있다. 강림의 입사의례를 통해 인간의 수명과 관련한 업무들은 저승에서 관장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강림의 임무를 대행하려했던 까마귀의 실수로 ‘순서없는 죽음’이 유래되고, 강림이 피를 내어 3천년을 살았던 동방삭을 잡아와서 인간차사로 좌정하는 것은 저승의 규칙대로 이승을 질서화하는 사건이다. 저승차사로의 존재전환 과정에서 부과된 과제는 이승적 관점에서 죽음의 문제를 재해석하고,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을 정립하고 있다.

강림은 고정된 인물형이 아니라 변화를 거듭하는 입체적인 인물형이다. 인물형상의 변모양상들은 강림의 영웅성을 담보하는 근거이다. 그 결과 강림은 인식의 전환을 이루고, 아내와도 완전하게 화합하며 가족관계도

정비한다. 강림의 저승여행과 그로 인해 마련된 의례와 관습 등은 상징계의 기원으로 자리매김되고, 그것은 다시 의례화되어 죽음을 삶의 영역에서 포섭하여 의미화하는 데 일조하는 것이다.

강림 인물형상의 변모양상은 저승차사로의 전환과 그에 따른 정체성 확인과정을 보여준다. 강림은 마초였지만, 절망의 밑바닥에서 기존의 인간관계들을 재인식하는 계기를 맞으면서 큰부인의 진가를 알게 되며, 자신의 한계를 직시하고 큰부인의 도움을 받아 저승여행길에 오르게 된다. 저승여행 도중에서 경험하게 된 다양한 사건은 그의 인식을 변화시킨다. 여정이 진행될수록 그는 점차 안정을 찾으면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지혜를 발휘하게 된다. 그는 염라왕을 포박하고 인정을 받으며, 귀환한 후에도 동헌을 방문한 염라왕과 김치원님의 갈등을 당당하게 중재한다. 시련을 겪으면서, 무지로부터 오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계공간에 적응하게 된 이후 강림은 더욱 당당하고 여유로워졌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획득된 능력은 강림이 인간차사로 좌정하는데 일조한다.

이처럼 강림의 이계여행은 낮은 단계로의 여행에 관한 노정이자 자신의 내면으로 향한 탐색의 여정이다. 여행을 통해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얻으면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존재전환을 이룬 것이다.

4. 이계와의 소통 : 의례를 통한 공간의 내부화

<차사본풀이>는 저승세계 여행자인 강림의 여로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여정의 지점마다 인물이 처해있는 상황이 재현되고 그 상황에 대처하는 해법이 마련된다. 인물의 형상은 여정의 진행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있다. 강림의 행로를 따라가다 보면 저승세계의 공간구조가

눈앞에 펼쳐지는 것처럼 느껴진다. 미지의 세계인 저승은 강림의 노정을 따라 점차적으로 그 내용을 드러내고, 강림의 경험을 통해 얻어진 정보들은 저승과 그 세계의 질서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도와준다. 비밀스럽기만 하던 저승세계는 既知의 세계, 경험의 영역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강림의 여정을 살펴보면 세상은 크게 이승계와 저승계로 나누어지고, 각각의 공간영역은 78갈림길을 기준으로 구획된다. 이승계는 여러 층위로 이루어지는데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집이다. 큰부인의 집은 안과 밖으로 구분된다. 집의 안은 삶의 근거지이자 초자연적 세계와의 교신도 가능한 세계의 중심이다. 집의 밖은 마을공간으로서 남문을 기준으로 안과 밖이 구분된다. 남문의 안은 고을이며 동헌을 중심으로 질서화된 사회적 공간이다. 남문의 밖은 78갈림길을 기준으로 하여 이승계와 저승계로 구분된다. 갈림길 이편의 이승계는 인간세상에 속하지만 갈림길 저편은 인간이 갈 수 없는 미지의 세계로서 타자화된 저승공간이다.

집의 내부에서부터 외부로, 마을의 내부에서 외부로, 이승계에서 저승계로 향해가는 강림의 여정은 내부공간에서부터 외부공간으로의 이동으로 요약된다. 인물이 초기단계에 보였던 정서적 반응양상의 기초가 ‘올다’였던 것은, 저승이라는 외부공간에 대한 두려움이 야기한 익숙한 삶의 공간, 즉 이승이라는 내부공간에의 집착을 반증한다.

공간이동에 관한 강림의 고민은 의례가 개입되면서 해결의 단서를 보인다. 강림의 아내는 가신의례를 행하여 강림의 저승여행길을 열어주기를 기원한다. 강림이 여정에 오르자 조왕신은 78갈림길 앞까지 안내하고, 문전신은 78갈림길에 대한 내용과 진입한 이후의 행동수칙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려준다. 갈림길 이후는 저승여행자인 강림 혼자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는 가신들의 공간영역이 집을 기준으로 갈림길 이편의 내부공간임을 보여준다. 갈림길 앞에서 저 세상으로 나아갈 방법을 알려주는

것은 집의 안/밖을 구획하는 문을 관장하면서 외부위협으로부터 내부공간을 보호하는 문신의 직능과 상응한다. 문이 집의 안/밖을 구획하는 경계지점이라면 갈림길은 이승과 저승을 구획하는 경계지점이다. 대문과 78갈림길은 경계지점으로서 공간영역을 내부/외부로 구분하여 의미화하는 공간지표로 작용한다. 대문과 갈림길이 동일한 의미기능을 갖는 것처럼 집(집안)과 세계(이승계)도 대응관계에 있다.

갈림길 앞에서 문신은 78갈림길 하나하나를 알려주는데, 그 안에는 우주창조의 역사로부터 인문의 역사를 망라하는 신성한 원형적 사건들, 그리고 그러한 공간 및 인간 삶의 제영역을 관장하는 신성들의 길이 두루 망라된다. 따라서 78갈래길은 거룩한 원형적 사건과 신성존재들의 계보가 압축되어 있는 공간적 루트인 셈이다. 거기에는 강림이 들어가야 하는 길도 제시된다.¹²⁾ 이로 보건대, 문신의 갈림길 계보 풀이는 저승길 진입을 앞둔 내부인 강림의 길을 열어주는 의례적 행위로서 여행의 성공적 수행을 축원하는 것이다.

강림이 갈림길 진입 후 질토래비를 만나는 것은 저승세계의 질서에 구체적으로 다가가는 사건이다. 질토래비는 저승계 내부공간의 길을 닦는 소임을 맡은 존재로서 직능상 길에 위치한다. 길이 공간 간의 소통 매개임을 감안하면 질토래비는 그 원활한 소통을 돕는 존재이므로 강림의 여행길을 도와주는 조력자로 역할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이계여행자 강림이 저승의 이원사제 질토래비와 관계 맺는 방법은 ‘인정’을 쓰는 것이다. 떡을 받아먹은 질토래비는 강림에게 저승관련 정보들을 제공하고, 삼혼을 불러 여행자로서의 자격을 부여한다. 삼혼부르기로 저승 내부공간영역으

12) 그 일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천지혼합시 들어간 질, 천지계벽시 들어간 질, 인왕도업시 들어간 질, 천지천왕 들어간 질, 천지지왕 들어간 질, 천지인왕 들어간 질……. 이승 강림이 들어간 질, 죽고두고 계엄지 웬뿔 혼 착만이 질이 났구나.”(현용준, 앞의 책, 252-254면)

로의 진입 자격을 얻은 강림의 혼정은 행기뭇을 거쳐 저승 연추문 앞(초군문)에 도달한다.

이러한 노정을 따라, 이승과 대립되는 외부공간이었던 저승세계는 강림의 여정이 진행됨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하고 있다. 가신들의 안내를 받아 저승계로 진입한 이후 확보한 정보들을 토대로 상황에 적응해가는 과정은 외부공간이던 이계공간을 내부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염라왕을 포박한 이후 강림은 염라왕과 함께 ‘말젯장자칩 전새남 받아먹으러’ 가고, 자기 이름이 호명되지 않자 심방을 사문결박하여 오리정 신청계에 초대된다. 이는 이후 ‘시왕당클 아래 사젯상(使者床)을 세우고’ 제향을 받게 된 유래로서 그가 신성의 반열에 합류하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전새남이 베풀어지는 현장에서의 삽화는, 제의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의 국면이 청신의 대상인 신성존재들(염라왕, 저승차사)과 해당 의례를 주재하는 심방들과의 관계를 통해 흥미롭게 재현되며, 이를 통해 의례의 효용성도 보여주고 있다.

저승공간의 내부화는 염라왕의 이승방문과 동현에서 이루어진 염라왕의 재판에서 극대화된다. 처음 우열이 현격했던 염라왕과 김치원님의 관계는 강림의 중재에 의해 대등한 위상을 정립한다. 이어 염라왕은 과양생 처의 원정소지를 처결하면서 버물왕 3아들의 죽음에 얽힌 사연을 밝혀내고, 선과 악을 드러내어 상과 벌을 준다. 3형제는 재생시켜 부모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과양생 부부는 몸이 찢겨진 후 각다귀·모기 몸으로 환생한다. 상벌의 내용이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염라왕의 재판은 시왕전에서 행해지는 저승판결을 연상시킨다. 저승 중심부(시왕전)의 공적 업무가 김치원님의 동현에서 재현되는 것은 저승질서가 이승공간에서 공식적으로 실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간의 전도는 저승공간의 깊숙한 질서까지도 이승의 영역으로 끌어들이어 이승적 관점에서 내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강림의 여행과정에서 마련된 일련의 행위들은 저승세계와 관계 맺기에서 선행되어야 할 기본 매뉴얼로 자리한다. 갈 수 없는 세계, 단절된 이계와의 소통을 위해 행해진 의례들은 법제화되어 상장례의 기원으로 자리매김되고, 이후 상장례의 절차로서 관습화되고 있다. <차사본풀이>에서 언급되는 상장례의 기원들이 실제로 강림의 전례에서 유래했는지 사실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인식이 제주도 무속집단의 관념체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강림의 행위가 상장례의 기원이 되었다는 것은 그가 집단민에게 위대한 능력을 보인 신성한 조상이자 영웅으로서 관념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강림은 이승과 저승을 연결하고 삶과 죽음이 상호소통 가능하도록 관계를 맺어준 영웅이자 조상이다.

죽음과 삶은 단절된 것처럼 보이나, 존재론적으로 연속적이다. 버물왕 3형제의 경우, 연명시도가 좌절된 후 환생의 과정을 거쳐 다시 죽었지만 염라왕의 판결을 통해 재생한다. 강림의 사후 몸은 동헌 마당에서 뻗뻗한 시신으로, 혼정은 저승에서 입사식을 거쳐 인간차사로 좌정한다. 죽음으로 몸과 혼은 분리되고, 혼정은 저승으로 가서 염라왕의 판결을 거쳐 새로운 삶을 부여받는다. 사후의 존재태는 생전의 행위에 따른 과보로서 주어지고 있다. 염라왕의 판결은 사후 세계와 사후의 존재방식에 대한 관심을 다각적으로 보여준다.

저승이라는 외부공간은 강림을 통해 인간의 영역으로 포섭되고 내부화됨에 따라, 미지의 세계에서 기지의 세계로 전환된다. 인간으로서 저승여행의 선례를 보여준 강림의 사례는 향유층의 이해를 도와 죽음과 사후세계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완화시켜준다. 첫 번째 저승여행이 이승인의 관점에서 저승세계 구조와 질서를 바라보는 것이라면, 저승차사 입사담은 죽음의 보편성과 평등성을 드러내어 죽음이라는 현상을 질서화하고 있다

고 보인다. 강림의 저승여행과 저승차사로서의 통과의례는 삶과 죽음을 소통가능한 관계로 전환시키는 장치이자 의례적 모형이다. 강림의 저승여행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들은 이후 저승여행자들의 의례적 모형을 담보하는 전례로서 상장례 의례의 기원으로 자리한다.

강림의 저승행은 세계간의 공간적 경계를 넘어 일체화된 세계상을 실현하는 과정이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의례이다. 세계내적 존재로서 인간은 이 세상 밖으로 갈 수 없다. 이계여행에서 길찾기가 가장 문제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¹³⁾ 길찾기는 닫힌 세계의 문을 열기 위한 의례적 행위에 비견된다. 강림의 저승여행에는 공간적 경계 지점마다 의례가 행해지고, 나아갈 방향이 제시된다. 그러한 노정에 따라 외부공간 저승은 점차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파악가능한 내부공간으로 변화한다. 강림의 여정을 통해 이루어진 이계공간의 내부화는 그의 과제수행 결과인 염라왕의 이승방문과 저승재판 사건에서 그 정점을 이룬다. 저승세계 중심부에서나 행해지는 사건이 이승의 동헌에서 재현됨으로써 세계의 질서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의례를 통해 서로 다른 세계공간이 경계를 허물고 하나의 통일된 세계상을 실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승의 관점에서 저승세계를 내부화하는 것은 죽음이라는 사건을 삶의 관점에서 의미화하고 양자의 관계를 연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죽음의 세계와 삶의 세계가 소통이 가능한 관계에 있다면 죽음도 삶의 연장선상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굿의 현장에서 강림의 서사를 들으면서 무속 향유자들은 죽음이라는 사건을 삶과 연관하여 이해하고, 삶과 죽음을 연속선상에서 이해하는 무속적 세계관을 자연스럽게 학습하고 내면화하게 되는 것이다.

13) 강진옥, 「신성과의 소통방식을 통해 본 무속의례와 신화의 공간성 연구」, 『비교민속학』 제39집, 비교민속학회, 2009.8, 413면.

앞서 강림의 행로에서 드러난 바, 정체성은 삶의 영역에서 중요한 것이지만 죽음 이후에도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 염라왕이 강림의 삼혼을 빼내 저승으로 간 후, 강림의 아내는 상장례 의례를 여법하게 시행하고도 ‘섭섭허연 일년에 혼 두번 잊어볼지나 말자고’ ‘삼명일(三名節) 기일제사법(忌日祭祀法)’을 마련한다.¹⁴⁾ 이러한 사후에 행해지는 저승여행 의례는 앞선 저승여행과 대비된다. 앞선 여행에서 행해진 의례들은, 강림을 매개로 한 이계와의 소통방식으로서 강림의 정체성 확인과정이 선행되고, 강림의 여정을 따라 저승세계의 내부공간화가 이루어졌다.

사후 의례에서, 상장례가 망자의 존재론적 영역이 이승공간에서 저승공간으로 이동했음을 확인하는 것임에 비해, 기일제사법은 그 존재를 이승적 차원과 저승적 차원에서 동시에 확인하는 의례라 할 수 있다. 개인은 죽음 이후에도 이승과의 관계를 통해 그 존재를 확인하는데, 그러한 관념은 가족주의적 세계관에 기반하고 있다. 무속적 관념에 의하면, 저승으로 간 망자는 조상신으로 전환하며 그 존재는 가족공동체에 의해 뒷받침되는데, 제례는 그들의 존재를 확인하고 기념하는 의례적 행위가 된다. 가족주의적 세계관에서 제례가 중요시되는 것은, 개인의 존재가 가족공동체 속에서 확인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념은 행기못 주변의 귀신들을 통해서 반증되는데, 정처를 잃은 이들의 굶주림은 의례를 통해 그 존재를 확인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차사본풀이>에서 강림의 행로를 따라 드러나는 세계관념과 저승에 대한 정보들은 여행자 강림의 경험영역으로 내면화되어 그의 인식을 변화시킨다. 여정에 따라 변모하는 인물형상은 그것을 반증한다. 저승은 처음 길찾기의 어려움으로 대변되는, 알 수 없는 외부공간으로 인식되었지만, 강림의 저승여행을 통해 저승공간에 대한 많은 지식을 축적하게 되면

14) 현용준, 앞의 책, 271면.

서 이해 가능한 세계로 전환된다. 저승에 대한 이해는 죽음에 대한 이해와 연결된다. 강림의 경험은 무속의례를 통해 공유되면서 지식체계화하여 무속적 관념체계 형성에 일조한다. 달리 말하면, <차사본풀이>의 저승세계에 관한 정보들은 무속적 세계관념에 기반하여 형성된 지식체계가 무속의례에서 구연됨에 따라 향유층에게 공유되는 것이다. 강림의 저승여행에서 행해진 사건들은 상장례 및 제례의 기원적 사건으로서 이후 의례화, 관습화되고 있다.

이제공간은 강림의 여정을 따라 점차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세계간의 경계지점을 표상하는 공간적 지표가 부각되며, 이러한 지점마다 특별한 의례가 수행된다. 출발지점에서 가신의례로 여정을 열었고, 문신의 갈림길 풀이로 '저승 들어가는 길'에 진입했으며, 삼훈부르기로 저승 초군 문까지 도달했던 것처럼. 강림의 서사는 강림이 경유하고 도착하는 여정의 과정을 충실하게 제공하고 있다. 강림의 서사가 여행 서사로서 주목되는 이유는 공간지리적 정보뿐만 아니라, 죽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노정에서 보여준 여행자 강림의 인간적 면모에 있다. 여정에 따라 변모하는 인물의 형상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삶을 향한 열망이 부딪히면서 만들어진 자기확인의 과정이다. 저승여행을 향한 필사적인 의지는 세계간의 경계를 넘고자 하는 인간의 열망을 보여주고, 마침내 죽음을 넘어 새로운 생명을 가능케 하는 단서를 마련한다. 버물왕 3아들의 재생은 강림의 저승여행이 이루어낸 결과이다. 그들은 연명시도가 좌절된 후에도 불굴의 의지로 환생을 거듭한 결과 연명에 성공하는 것이다. 강림의 저승여행이 버물왕 3형제의 재생을 초래하는 것은 바리공주의 구약여행이 아버지의 재생을 초래하는 것에 비견된다. 바리공주의 직능이 망자의 저승길을 안내하여 조상신으로의 전환을 돕는 것처럼, 인간차사 강림의 직능도 망자의 저승길에 동행하여 저승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강림의 저승여행은 이승/저승으로 구획된 세계간의 경계를 넘어 소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승과 저승이라는 공간영역은 각기 삶/죽음을 표상한다. 공간이동은 삶과 죽음이라는 시간적 현상을 공간의 이동을 통해 재현함으로써 시간의 공간화를 보여주고 있다.¹⁵⁾ 저승여행자 강림은 서로 다른 세계 공간을 넘나들면서 삶과 죽음이라는 시간적 경계를 넘어서게 된다. 이승/저승으로 구획된 세계간의 경계를 넘음으로써 일체화된 세계상을 실현하고 있다. 시공간을 초월한 존재는 불멸의 존재, 신이다. 강림의 이계여행은 여행을 통해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해갔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이며, 인간의 경계를 넘어 신이 되는 경계넘기의 서사인 것이다.

5. 마무리

<차사본풀이>는 저승차사의 좌정내력을 풀이하는 무속신화로서 주인공 강림의 저승여행이 서사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강림의 행적은 이승적 존재가 저승차사 직능을 갖게 되는 존재전환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본고는 강림의 저승여행 과정과 인물형상의 변화가 대응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강림의 여정에서 드러나는 존재전환과 이계와의 소통을 통한 경계넘기를 논의대상으로 삼았다.

서두부분에 나타나는 인물의 대응방식으로 볼 때, 여행의 목적지로 제시되는 저승세계는 미지의 세계로 간주된다. 그러한 세계로 가야하는 강림을 지배하는 정서는 알지 못하는 세계에 대한 두려움과 절망이다. 반면 임무를 완수하고 귀환한 이후의 강림은 이승과 저승을 중재하는 존재로

15) 강진옥(2009), 416면.

서 그 면목을 달리하고 있다. 여행의 경로와 인물형상의 변화가 맞물려 있다는 것은 여행서사다운 특성을 보여주는데, 여정이 진행됨에 따라 견문이 넓어지고 체험영역이 확장되므로 인식 또한 자연스럽게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행의 경로(공간적 배경)에 따라 인물형상이 변모하고 있다는 것은 여행체험이 여행자의 세계인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런 점에서 강림의 이계여행은 낯선 타계로의 여행에 관한 노정이자 자신의 내면으로 향한 탐색의 여정이다. 여행을 통해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얻으면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존재전환을 이루기 때문이다.

<차사본풀이>는 강림의 저승여행을 통해 여정의 단계에 따른 인물의 내면적 상황이나 존재론적 위상과 긴밀하게 대응하는 인물형상을 재현함으로써, 무속집단의 존재론적 관심이나 세계공간에 대한 상상력을 구체화하는 데 일조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강림의 저승여행은 그가 가장으로서, 사회적 존재로서, 저승차사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음이 확인된다. 둘째, 강림의 노정을 따라 미지의 세계이던 저승이 既知의 세계, 경험의 영역으로 전환되는 과정은 저승세계를 이 세상적 관점에서 내부공간화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이승과 저승은 각기 삶/죽음을 표상하므로, 이승의 관점에서 저승세계를 내부화하는 것은 죽음이라는 사건을 삶의 관점에서 의미화하고 양자의 관계를 연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넷째, 세계간의 공간적 경계를 표상하는 지점마다 특별한 의례가 수행되며, 의례를 통해 세계공간은 그 경계를 허물고 하나의 통일된 세계상을 실현한다.

강림의 저승여행은 이승/저승으로 구획된 세계간의 경계를 넘어 소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를 보여주며, 여정에 따라 변모하는 인물

의 형상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삶을 향한 열망이 부딪히면서 만들어낸 자기확인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일체의 경계를 넘어 참된 자기를 확인 해가는 강림의 여정이 도달하는 궁극적 지점은 인간의 경계를 넘어 신성 존재로의 좌절이다. 강림의 저승여행은 인간이 신으로 전환하는 경계넘기의 서사인 것이다.

이계여행은 우리 무속신화 주인공의 행적에서 중요한 요소이고, 이계 여행을 통해 존재전환을 실현하는 인물의 이야기는 보편적인 신화적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강림의 저승여행은 그 자체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무속신화 주인공들의 사례와 비교할 때 그 의의가 뚜렷해질 것이며, 유사한 화소를 지닌 세계 신화들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 여행서사의 신화적 의미와 문화적 특성을 보다 뚜렷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여행서사의 비교신화학적 연구는 후속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 강정식 외, 『동북 정병춘대 시왕맞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8, 1-700면.
- 강진옥, 「'신성과의 소통방식'을 통해 본 무속의례와 신화의 공간성 연구」, 『비교민속학』 제39집, 비교민속학회, 2009.8, 387-438면.
- 강진옥, 「〈차사본풀이〉의 서술구조와 의미지향 : 〈김치(金織)설화〉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비교민속학』 제43집, 비교민속학회, 2010.12, 187-225면.
- 강진옥, 「김치(金織) 인물형상화 방식에 나타난 〈차사본풀이〉 서술시각 : 『해동이적·보』 소개 〈김치설화〉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제31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10.12, 201-234면.
- 강진옥, 「〈김치설화〉의 존재양상과 〈차사본풀이〉의 형성문제」, 『비교민속학』 제41집, 비교민속학회, 2010.4, 327-361면.
- 권태효, 「인간 죽음의 기원, 그 신화적 전개양상」, 『한국민속학』 제43집, 한국민속학

- 회, 2006, 43-71면.
- 권태효·김윤희, 『동계 자료와의 대비를 통해 본 <차사본풀이>의 성격과 기능』, 『구비문학연구』제30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10.6, 205-240면.
- 김열규 외, 『한국여성의 전통상』, 민음사, 1985, 1-175면.
- 김형근·김현선, 『제주도 무속신화 <차사본풀이> 연구: 함흥 <짐가제굿> 무가와 의 비교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제31권 3호 112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239-271면.
- 김화경, 『차사 본풀이의 구조 분석』, 『인문연구』24,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 3, 75-94면.
- 문무병, 『제주도무속신화: 열두본풀이자료집』, 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1-383면.
- 문무병, 『제주도 큰굿자료: 1994년 동김녕 문순실댁 중당클굿』, 제주도 제주전통문화연구소, 2001, 1-646면.
- 오세정, 『신화, 제의, 문학: 한국 문학의 제의적 기호작용』, 제이앤씨, 2007, 1-292면.
- 이수자, 『제주도 무속을 통해서 본 큰굿 열두거리의 구조적 원형과 신화』, 집문당, 2004, 1-500면.
-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2001, 1-290면.
- 장희철, 『<차사본풀이>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1-55면.
-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1-922면.
- 최원오, 『<차사본풀이> 유형 무가의 구조와 의미』, 『한국민속학』제29집, 한국민속학회, 1997, 223-246면.
-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1-969면.

ABSTRACT

A study on <Chasabonpulyi>: with a focus on Ganglim's journey to the other world and transformation of existence

Kang, Jin-Ok

<Chasabonpulyi> is the shaman myth that tells about movements of a death envoy, Ganglim to the other world. Ganglim's travel to the other world is a journey to an unfamiliar world as well as an exploration to his inner self. The character types that change along the path of the travel show his transformation as a death envoy and process of his self identification.

As Ganglim travels the other world shows itself and the boundaries of different worlds become distinct. As special rituals are carried out at each boundary, entrance to the other world is gradually open. Ganglim's travel makes the other world into a known world and internalizes the space from the view point of this world.

Ganglim's travel to the other world represents the human determination to cross the boundary set between this world and the other world in order to communicate. The traveller Ganglim realizes the image of the unified world. The characters that transform during the journey represent the process of self-identification in the battle between the fear of death and aspiration for life. The epic of Ganglim is the story that tells how he identifies himself and transforms. It is the story of crossing the boundary of human world to become a god.

Key Words Chasabonpulyi, travel to the other world, death envoy Ganglim, teleporting, transformation of existence, internalization of space, communication with the other world, crossing the boundary

논문투고일 : 2012. 04. 30
심사완료일 : 2012. 05. 30
게재확정일 : 2012. 06. 05